

울산시 토목직 6급 최금석씨의 특별 승진

경제포커스



이진석

경제부 선임기자

울산시 공무원 최금석(44)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작년 7월까지 울산시 청이 아니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3층 총무팀으로 출근했다. 최대표 행정 사무관과 함께 현대자동차 울산 신공장 인허가 업무를 전담했기 때문이다. 토목직 6급인 그는 최소 3년은 걸린다고 했던 각종 인허가를 10개월 만에 끝냈다. 2025년 공장이 완공되면 1996년 아산공장 이후 29년 만에 세워지는 현대자동차 국내 공장이 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렇게 지시했고, 그는 그대로 따랐다고 했다. “현대자동차 사람들이 당신 말고는 다른 공무원들 만날 일이 없도록 해줘라.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 당신이 다 만나서 해결해줘라.”

현대자동차의 신공장은 기존 주행시험장, 완성차 야적장 등 밀집된 시설을 철거하고 세우는 연면적 33만㎡의 초대형 전기차 전용 공장이다. 연간 20만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2조3000억원 짜리 공장과 2000개의 일자리가 울산 시에 생긴다. 연 매출 15조원을 예상하는 공장인데 2년 앞당겼으니 30조원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다는 평가도 나

온다. 그는 “두 딸이 아빠가 한 일을 알아주는 것이 가장 큰 격려와 칭찬이었다”고 했다.

공장 건설 인허가는 ‘지뢰밭’이라고도 한다.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국공유지 사용 허가, 도로 진출입 허가 등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담당 부서는 다르고, 흩어져 있다. 울산시청, 울산 북구청,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곳곳에 관련된 부서가 30곳쯤 된다. 그리고 한군데만 문제가 생겨도 그대로 멈춰선다.

현대차 29년만의 국내 신규 공장 인허가 기간 2년 단축시킨 주역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지만 공무원이 도우면 큰 힘이 된다

인허가는 담당자의 업무 미숙, 법령 적용 오류 등으로 하릴없이 지연되기 일쑤다. 그는 “관련 부서에서 자의적 해석, 소극적 해석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런 것이 제도적 규제는 아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가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현대자동차가 국내에 공장을 세운 것이 오래돼서 대규모 인허가를 경험해 본 실무자들이 다 퇴직하고 없었다. 처음에 회의를 했는데 ‘환경영향평가만 1년 반은 잡아먹는다. 난도가 너무 높다’는 부정적인 분위기가

만 하나씩 바뀌어갔다”고 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의 공도 크다. 인허가 리스크에 머뭇거리던 현대자동차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걸 안다. 공무원을 파견해서라도 돕겠다”고 했다고 약속을 지켰다. 그렇게 해서 34년 만에 울산에 현대자동차 신규 공장이 만들어지게 됐다.

지난 정부는 세급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공공기관들이 채용형 청년 인턴을 채용하게 하고, 국립대에서 빈 강의실 전등 끄는 에너지 절약 도우미를 뽑게 했다. 취업률 통계만 부풀린 까닭 일자리였다.

일자리가 기업이 만든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기업을 도와주면 더 빨리,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 나라에 장관이 많고, 고위 공무원이 솟아지나 울산시 토목직 6급 공무원보다 낫다고 할 수 있을까.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가 늘어나는 나라를 만들려면 공무원들이 움직여야 한다. 정부가 할 일은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그는 작년 7월 현대자동차 신공장 인허가를 끝내고도 울산시청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곧바로 삼성SDI 울산 사업장으로 가서 배터리 신규 공장 인허가를 돕고 있다. 2006년 토목직 7급 공채에 합격해 고향인 울산시에서 일하는 그는 작년 말 6급에서 5급으로 특별 승진했다. 기업현장지원단의 팀장이 됐다. “승진했으니 더 잘해야 한다”고 했다.

황석희의 영화 같은 하루 [155] 계획대로 해, 예측하되 임기응변하지 말고

Stick to your plan. Anticipate. Don't improvise

맛있는 건물에서 암살 타겟이 나타나길 기다리는 킬러. 벌써 5일째 감시 중이지만 타겟이 나타나지 않는다. 살인을 철저히 직업적으로 대하는 킬러는 이 세상을 이렇게 말한다. “약육강식의 세상이다. 죽느냐, 죽이느냐. 적자생존이란 거지(It's a dog-eat-dog world. Kill or be killed. Survival of the fittest).” 그저 타겟이 나타나면 죽이고 돈을 받을 뿐이다. 한 킬러의 담담한 독백으로 이어지는 영화 ‘더 킬러(The killer·2023·사진)’의 한 장면이다.



영화 번역가

시종일관 냉소적인 이 킬러는 인간을 믿지 않는다. “기꺼이 성선설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다. 정확히 될 근거로(Of those who like to put their faith in mankind's inherent goodness, I have to ask, based on what, exactly)?” 온갖 상념이 머릿속을 떠나지만 여전히 타겟은 나타나지 않는다. “사람을 과묵으로 이끄는 건 한가한 시간이다(It's the idle hours that most often lead a man to ruin).” 킬러는 미칠 지경이다. “사람을 화나게 하려고 고안된 일들은 어째서지 하나같이 지루한 것들이다(Sometimes, jobs that are designed to rattle a cage are always

the most tedious.”

5일 넘게 타겟이 나타나길 기다리며 독백을 읊조린 결과 드디어 타겟이 등장했다. “계획대로 해, 예측하되 임기응변하지 말고(Stick to your plan. Anticipate. Don't improvise).” 늘 하던 임무를 속으로 되뇌며 총을 쏘는 순간, 타겟을 빗나간다. 이 찰두찰미하고 직업 정신이 투철한 킬러는 난생처음 직업적인 당혹감에 빠진다.

영화 번역가

社說

4월 총선에 특별 경호 대책 필요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은 참으로 아찔하다. 자칫 정치권은 물론 우리 사회가 송두리째 혼란에 빠질 뻔했다. 제1야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이 흉기에 찔려 부상을 입은 사건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도 정당과 정치인을 혐오하는 사람이 테러까지 벌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더구나 정치 양극화까지 극심한 상황이다. 지난해 본지 여론조사에서 국민 67%가 ‘우리 사회의 정치적 갈등이 공동체를 불안 또는 위협하게 만들고 있다’고 답할 정도다. 국민의힘 지지자 44%, 민주당 지지자 45%는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과 식사나 술자리를 함께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긴다고 했다. 국민이 ‘두 쪽’ 낫다는 뜻이다.

여야는 이 같은 극단적 대립을 오히려 활용,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이 같은 현상은 더 심해지고 있다.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는 여야의 주요 정치인 누구든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이 신속하게 대통령 선거에 준하는 특별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022년 괴격대 사망한 지 9개월 만인 지난해 4월 기사다 후미오 현 총리를 노린 사제 폭탄이 투척된 테러 사건이 있었다. 경찰이 특별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일본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특히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 얼마든지 무기류를 만들 수 있다.

경찰은 이 대표 피습 직후 “4월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 이어서 야당 대표는 경호 대상이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다 파장이 커지자 전국 시·도 경찰청에 ‘주요 인사 전담보호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사건 당일 40여 명의 파견 경찰관은 교통, 인파 통제에만 신경을 썼다고 한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주요 정치인 신변 보호를 최우선 순위로 뒤야 한다. 이번 사건도 경찰관 몇 사람만이라도 이 대표를 근접 경호했다면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경찰은 이번 기회에 경호 규칙을 개정, 선거가 임박하지 않더라도 지방경찰청장 재량으로 정치 행사에 참석하는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경호팀을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노후 아파트 방화 장비 보강하고 대피 교육 해야 할 때

2일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50대 남성이 숨지고 아내가 중상을 입었다. 지난달 25일엔 서울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는 등 30명 넘는 사상자를 냈다. 이번 아파트 화재와 인선, 수원, 춘천 등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아파트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아파트 화재와 사상자 발생은 개인이나 특정 아파트 일로 치부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요인이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산본과 방학동 아파트는 90년대 지어져 초기에 불을 끄기 위한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2005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스프링클러, 화재 감지기, 가스 누설 경보기, 완강기 등을 대부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지은 지 20년 이상인 아파트는 대략 560만 가구다. 이들 대다수가 스프링클러 등 화재 대응 시설을 갖추지 않아 화재 시 피해가 커질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기존 건물에 소급 적용하는 것은 대규모 공사가 필요해 쉽지 않다. 그렇다고 노후 아파트를 언제까지 화

재 사각지대에 놓아둘 수는 없는 일이다. 우선 급한 대로 완강기 설치 등 화재 진화와 대피 장비 보강을 서둘러야 한다.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우선하는 문제는 없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해 아파트 단지별로 보강을 유도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파트는 국민 두 명 중 한 명이 살 정도로 보편적인 주거 형태다. 그런데 매년 평균 3000건 가까이 아파트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도 아파트에 불이 났을 때 안전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상황이다. 장비 보강과 함께 대피 교육이라도 현실에 맞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

소방 당국은 지난해 11월 ‘아파트 화재 피난 대책 개선 방안’을 내놨지만 이를 아는 주민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자신의 집에 불이 나면 즉각 대피해야 하고, 옆 집 화재라면 상황을 먼저 살핀 다음 행동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아파트 단지별로 화재 대응 매뉴얼을 점검하고 주민 각자가 화재 시 대피 요령을 익혀두는 것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

광란 질주 SNS로 생중계한 초등생, 이러다 큰일 날 것

10대 중학생과 초등학생이 인천에서 한밤에 시속 100km로 무면허 운전하는 모습을 소셜미디어(SNS)로 생중계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초등학생이 아버지 차량 열쇠를 몰래 들고 나와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한다. 이들은 번갈아가며 운전했고 시속 100km까지 속도를 내는 모습을 SNS 라이브 방송으로 내보냈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한 시청자의 신고로 이들은 범행 2시간 뒤 붙잡혔지만 이런 일이 아무런 통제 없이 실시간 방송된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다.

이와 비슷한 사건은 전에도 있었다. 작년 4월엔 10대 여학생이 서울 한 고층 건물에서 SNS 라이브 방송을 켜 놓은 채 투신했다. 당시 수십 명의 사람이 동시 접속해 이 장면을 지켜봤다고 한다. 사람의 고통과 참담함, 위험천만한 상황을 흥미 위주로 소비하는 일이 아무 제한 없이 벌어지는 것이다. 작년 11월 대선에선 고등학생들이 또래 여학생을 감금한 채 생중계하면서 이를 SNS로 생중계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이런 일들은 그 자체로도 심각하지만 다른 청소년들의 모방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확인하긴 어렵지만 이미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국내에서 소셜미디어 가입 연령 제한 등 사실상 아무런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운영하는 국내 소셜미디어는 만 14세 이상부터만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을 두고는 있다. 하지만 가입 신청을 받으면서 태어난 연도만 물어볼 뿐 다른 인증 절차가 없어 얼마든지 14세 이상이라고 속여서 가입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일이 많다고 한다.

미국 유다주는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가입·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법을 올 3월부터 시행하는 등 미국과 유럽에선 정치권이 앞다퉀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 입법을 하고 있다. 우리도 소셜미디어 가입 연령을 높이고 가입 절차를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콘텐츠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 EU는 작년 8월부터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대해 불법 유해 콘텐츠를 의무적으로 제거하고 이를 어길 경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디지털서비스법을 시행하고 있다. 얼마 전엔 불법 유해 콘텐츠에서 어린이를 보호할 세부 방안을 제출하라고 유튜브와 틱톡에 요구하기도 했다. 우리도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자율 규제에만 맡기지 말고 이를 강제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정비해야 한다.

'한동훈 현상'에서 희망을 봤다... 나는 그를 열렬히 지지한다

4.10 총선은 제2의 한국전쟁... 한동훈과 함께 승리하고 싶다

'용기와 헌신'은 우리의 무기... 그와 함께 동료 시민이 되고자 한다

<한동훈에게서 '신뢰·나은 삶·자유와 전진의 미래'가 떠오른다>

7. 한동훈은 헌법정신으로 거약 일소와 미래 통합을 하겠다고 한다.

그는 최고의 특수부 검사로서 거약을 수사 처벌하는데 정교하고 뛰어난 실력을 증명했다. 그러면서 겸손함과 배려심까지 보여주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구약과 질곡이 일소되고 통합으로 전진하는 나라의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2. 운동권 특권 청산·서민 청년의 나은 삶·한미 공조의 높아진 희망을 본다

그는 지난달 25일 취임사에서

- ★ 운동권 특권정치 폭주 청산
- ★ 동료 시민이 가져야 할 더 나은 정치문화 제시
- ★ 초저출산율의 인구구조 대응 대책
- ★ 진영과 무관한 서민·약자 지원
- ★ 자본시장 발전과 투자자 보호
- ★ 한미 공조와 원칙 있는 대북 정책
- ★ 청년의 입장에서 나아가게 하는 청년의 삶
- ★ 어르신 공경 정책
- ★ 지역 경제 부양
- ★ 국민의 생활 편의 증진 등 자신의 비전을 제시했다.

3.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뉴프론티어 정신의 젊고 스마트한 케네디와 한동훈

뉴프론티어(개혁자) 정신으로 미국을 미래와 신경계로 전진시킨 젊고 스마트한 케네디를 한동훈에게서 떠올려 본다.

- ★ 자유무역 확대
- ★ 흑인 인권 향상
- ★ 미국 최초의 우주인 비행
- ★ 소련의 쿠바 배치 미사일 철수를 이룬 케네디는, 미국인이 가장 사랑했던 대통령이었다.

케네디는 국민들이 조국에게 요구하기보다 여러분이 할 일을 물으려 했다. 한동훈은 동료 시민들과 함께 싸워 이겨야 할 총선을 위해 지역구 비례대표 모두 출마하지 않았다고 선언하는 현신을 보여줬다.

4. 용기와 헌신으로 조국 독립과 선진국 토대를 만들어낸 이승만·박정희와 한동훈

동료 시민과 함께 걸어 나가자는 한동훈의 요청은 현 시대에서의 조국 사랑 표현과 다르지 않다. 극심한 혼돈과 빈곤을 해결하고자 목적을 건 결단으로 나서 선진국의 토대를 이뤄낸 박정희 대통령. 전 생애를 나라의 독립에 헌신하고 북한의 6·25 남침 저지와 한미 동맹을 구축한 이승만 대통령. 그들의 용기와 헌신과 맥을 같이 한다.

5. 프랑스 마크롱, 영국 대처, 레이건 대통령의 자유주의 진진과 한동훈

★ 프랑스 마크롱의 자유주의 개혁과 진진
★ 영국 대처의 테법·어질장 해결
★ 미국 레이건의 공산주의 소련 해체.

이런 역사적 현상을 한동훈에게 기대해 본다. 대한민국 서민 삶의 향상, 안전한 나라의 미래가 보인다.

6. 새 지도자 세워낸 여당 원로 중진들

한동훈을 천거한 국민의힘 원로들, 겸손하고 질서 있게 당내 바른 합의를 이끌어낸 당 지도부. 그들에게도 찬사를 보내고 싶다.

7. 한동훈에 대한 지지기 세대·진영 전체에서 높다

<조선일보·TV조선>과 <중앙일보>의 지난 연말 조사 결과, [운동권 정치인 퇴진] 찬성이 52~58%로 비공감 36%를 앞질렀다. 민주당 최대 지지층인 40대에서마저 퇴진론이 더 높았다. 진보 성향이 강한 2030세 여성도 44%가 '한동훈이 여당에 긍정적인 것'이라고 답했다.

헌법 정신과 가치를 완벽하게 체현하고, 동료 시민과 서민에게 숭선수범으로 특권 청산과 나은 삶의 자유·미래 시대 정신을 말하는 한동훈과 동료 시민으로서 어깨 곁고 함께 걷고자 한다.

본 내용은 <뉴데일리>를 애독하고 적극 후원하는 독자께서 직접 작성한 것입니다

뉴데일리 칼럼 더보기 ▼

한동훈호, 내부총질권 기회주의 언론과 타협말라 [유근일 칼럼]

'한동훈 비대위'에 당부한다... 재창당 수준으로 혁신하라 [유근일 칼럼]

'뉴 국힘', 한동훈이 이끌라... '바른미래'가 탄핵파 기회주의의 꿈수 그만 부러라! [유근일 칼럼]

newdaily.co.kr 뉴데일리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4년 1월 3일 게재 되었습니다.

NO. 67 뉴데일리 칼럼 프린트 버전 시리즈

뉴데일리 콘텐츠를 지원해주세요

뉴데일리를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7-880570 뉴데일리(주)